



[산업] LGU+ 일상비일상의틈 MZ세대 문화공간 06



Economy

코스피	2361.21 (-19.27)	코스닥	844.44 (-17.04)
금리 (국고채 3년)	0.877 (-0.024)	환율 (원-달러)	1143.20 (-3.70) (15일)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재계3세, 대표기업 리더 맡아 유연하고 과감하게 ‘광폭행보’

1부 韓경제, 도전과 응전의 5년

③ 4050 총수의 ‘젊은 리더십’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 대기업들의 총수가 젊어지고 있다.

불과 5년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4대 그룹 가운데 SK그룹을 제외한 상위 3개 대기업 총수는 모두 4050대로 젊어졌다. 그룹의 젊은 리더답게 구성원들과 수평적이고 유연한 소통을 이어가는 반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선진으로부터의 승계 과정과 경영권 분쟁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 있다.

최근 총수 자리에 오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대표적이다.

1970년생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임시 이사회를 통해 세계 2위인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정 회장은 수석부회장 재직시절 부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그룹의 1인자 타이틀을 넘겨받고 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미래모빌리티 솔루션 등 CES서 공개 ‘이목집중’ WEF 글로벌 리더 선정
구광모 LG그룹 회장
‘전장사업’ 흑자전환 성공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1위 그룹의 장기적 비전 ‘숙제’

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권위를 공명하게 행사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올해 1월 소비자가전쇼(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현대차 부스에서 PAV(개인용 비행체) 모형은 물론,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끊임없는 글로벌 인재 영입을 통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 회장은 이미 2009년 세계 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는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으로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전세계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다만 정 회장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에도 난제도 산적해 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글로벌 시장 대응과 중국 실적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이 수석부회장 시절 직접 상품 소개에 나선 첫 번째 모델인 코나의 전기차의 있다는 화제에 따른 대규모 리콜도 신경 써야 할 이슈다.

1978년생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경영 최일선에 나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별세 후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다소 이른 나이에 총수 자리에 오른 경우다. 구 회장은 젊은 나이에 취임 직후 상속세 납부와 파격적인 사장단 인사 등을 단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은 그동안 LG그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또한 공격적인 의사결정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제2의 반도체로 부상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필사적으로 생존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화합을 강조했던 LG의 전통에서 벗어나 경쟁사와의 법적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2020 제약&바이오포럼’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K-방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생산기지로 선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과 K-바이오를 새로운 한류로 키우기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섰다. 국내 55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사상 처음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을 가동하고 신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2020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만난 새로운 기회를 조망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정부 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 ◆ 일시 : 10월21일(수) 오후 2시~5시
-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 ◆ 주최 : 메트로경제
- ◆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 약속”

文 대통령, SK 연구소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구진 격려와 현장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공정과정(배양→정제→발효→품질검사)을 따라 순차적으로 연구실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세포를 고농도로 배양해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세포 배양실에서 현미경으로 배양된 세포도 직접 관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제백신, 진원생명과학 대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 등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 셀트리온과 GC녹십자 대표와 현장 연구진,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백신·치료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제백신, 진원생명과학이 각각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백신·치료제 개발 최종 성공까지의 길은 험난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번 개발 경험은 다음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므로 정부가 끝까지 지원해 반드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돼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빅히트 ‘따상’ 데뷔... 시총 8.7조, 엔터3사 압도

증시 입성... 경쟁률 607대1 25만8000원에 증시 마감 시초가 대비 4.44% 하락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증시에 입성한 첫 날. 시작은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통합경쟁률 606.97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덕분이다. 하지만 결국 밸류에이션(가치)의 부담을 넘지 못하고 이날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1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빅히트는 시초가 대비

4.44% 하락한 2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와 비교해서는 91.1% 상승한 수준이다.

이날 상장기념식은 빅히트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상장기념식 개최는 지난 7월 2일 SK바이오팜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개월여간 상장기념식이 열리지 않았다. 빅히트의 상장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방증했다.

◆ 빅히트, 단숨에 엔터 대장주 이날 증가기준 빅히트의 시가 총액은 8조7323억원이다. JYP

(1조2087억원), YG(8256억원), SM(7469억원) 등 엔터 3사 시총의 합보다 크다. 상장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로 떠올랐다.

실제 빅히트의 실적은 엔터 3사의 합을 능가한다. 올해 상반기 빅히트의 영업이익은 497억원이다. JYP가 225억원, SM이 14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YG는 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BTS가 빌보드 탑 100 1위에 오르는 등 인기 가속도가 붙은 만큼 온기 실적은 다른 엔터 3사의 영업이익을 크게 따돌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5면에 계속>

/손습지 기자 sonumji301@